

책 속에서 발견하는 책의 아름다움

문학작품 속의 책이야기

한권의 책을 찾아나서는 일은
현대소설에서 일반화된 주제다.
책을 뒤쫓고 책의 비밀을 찾는
모험소설이 독자의 흥미를 끈다.

때로 옛 책의 한 구절에서
소설이 시작된다.
시공사의 《책의 역사》 중에서.



라 만차의 이름 높은 기사 돈키호테가 갑옷과 말을 준비하고 모험을 찾아 세상을 누빈 까닭은 결국 책 때문이다. 할 일이 없어 심심할 때면, 돈키호테는 무용담이 써어진 책을 탐독했다고 세르반테스는 익살스럽게 말한다. 결국 돈키호테를 희대의 풍운아로 만든 책은 '고명한 실바의 펠리시아노 작품들, 헤로니모 페르난데스의 《돈 벨리아니스》, 무용시 《시드의 노래》, 호르헤 데 몬테마요르의 《다이아나》' 등이라고 세르반테스는 밝혔다.

이 위대한 소설 《돈키호테》를 능가하는 소설을 쓴 사람을 '아노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사람은 보르헤스다. 그는 《삐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라는 단편에서 한 자도 틀리지 않은 단편 《돈키호테》를 썼음에도 《돈키호테》보다 훌륭한 소설을 쓴 삐에르 메나르라는 작가를 소개한다. 왜 《돈키호테》가 《돈키호테》보다 위대한지는 책을 읽어볼 일이다.

《돈키호테》를 능가하는 《돈키호테》

보르헤스에 비하면, 학자풍인 움베르토 에코는 그만큼 의문스럽지 않다. 유실됐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중 희극부분을 소재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르헤스만큼 천연덕스럽지 않을 뿐이지, 《마비용 수도사의 편집본을 바탕으로 불역한 멜크 수도원 출신의 수도사 아드송의 수

기》라는 제목의 가상본을 소재로 한 이 소설 구석구석에는 우뚝하심의 《건강론》, 플라테아리우스의 《약초의 효능에 대하여》 등 다양한 중세문헌과 오르필라의 《독물논고》, 《요한목시록》, 《파우스트 박사》 등의 책이 숨어 있다. 크리스토프 란스май어의 《최후의 세계》는 오비디우스의 《변신》을 소재로 하지만, 이들 작품과는 약간 다르다. 《변신》이 불리는 장면에서 시작하는 이 소설은 《변신》을 찾아나선 '토미'라는 오비디우스 숭배자가 결국 결말에 이르면 정신이 돌아버려 《변신》 찾기를 단념하는 얘기로 끝난다.

한 권의 책을 찾아 나서는 일은 현대소설에서 일반화된 주제다. A.S. 바이어트의 《소유》는 표면적으로 빅토리아 시대의 천재시인 랜돌프 애쉬와 여류시인 크리스타 벨 라모트의 사랑을 다룬 소설이다. 런던도서관에서 시작하는 이 소설에는 애쉬의 《전집》은 물론 비코의 《신학문의 원리》, 리얼의 《지질학》 등의 책이 소개된다. 비슷한 유의 작품으로는 피터 애크로이드의 《어느 시인의 죽음》이 있다. 이 소설에서 뒤쫓는 시인은 토머스 채터튼. 자신의 작품은 수천 권의 책을 증류한 '대규모 표절행위'라 공공연하게 말하는 이 작가는 채터튼의 《국립식물원》, 《복수》, 《엘라》 등의 책과 초상화를 주요 소재로 다룬다.

최근에 출간된 소설로는 히라노 게이치로의 《일식》과 오르한 파묵의 《새로운 인생》이 책을

뒤쫓는 모험 계열에 속한다. 《일식》은 1471년 피렌체에서 나온 마르실리오 피치노의 《헤르메스 선집》을 찾아 리옹까지 갔다가 연금술사를 만나는 얘기고, 《새로운 인생》은 한권의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뀐 주인공 오스만이 그 책의 비밀을 찾아 벌이는 모험담을 담았다.

한 구절에서 한 권의 소설이 나오기

단순히 책을 뒤쫓는 소설이 너무 평면적이라면 책의 한 구절에서 비롯해 흥미진진한 소설로 발전한 페데리코 안다하시의 《해부학자》와 줄리안 반즈의 《플로베르의 앵무새》를 권할 만하다. 《해부학자》는 《인간 육체의 역사》라는 책을 읽다가 클리토리스를 발견한 '마테오 콜럼버스'라는 인물을 발견한 데서부터 써어지기 시작한 소설이다. 물론 마테오 역시 《해부학에 관하여》란 책을 남겼기 때문에 그의 해부학적 모험을 다룬 이 소설은 써어질 수 있었다. 《플로베르의 앵무새》는 더 미세하다. 플로베르의 소설 《순박한 마음》에 등장하는 룰루라는 이름의 앵무새로부터 소설은 시작한다. 이 놀라운 소설은 플로베르에 관한 모든 책을 종합했다.

— 김연수 기자